

※ <2018 정상국어> 1권 추록 총정리 33문제 (2017. 7. 10.)

1.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사인복지직 9급]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① 사회성 ② 역사성 ③ 자의성 ④ 분절성

1. [정답] ②

[풀이] 모든 언어는 항상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한다. 이렇게 언어가 개인의 일방적 의도가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은 어휘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통사적(문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③ 음절 초에 ‘ㄱ’, ‘ㄷ’, ‘ㅂ’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2. [정답] ④

[풀이] 화용론(話用論)은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이다. 영어는 ‘have(~을 가지고 있다)’로 표현하는 소유 중심의 언어이고, 국어는 ‘~이 있다’로 표현하는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오답]

- ①: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平音. 예사소리)-경음(硬音. 된소리)-유기음(有氣音. 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膠着語)(=첨가어. 添加語)의 특성을 보인다.
 ③: 현대 국어는 음절 초에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없다. ‘ㄱ, ㄷ, ㅂ’은 된소리로, 자음이 하나이다.

3.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ㅡ, ㅣ, ㅏ’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는 원순 모음이다.

3. [정답] ①

[풀이] ‘ㄴ, ㄹ, ㅇ’은 비음(鼻音)에 해당된다. ‘비음(鼻音)’은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참고로, 유음(流音)은 자음 ‘ㄹ’에 해당한다. ‘유음(流音)’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4.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2017 시·회복직 9급]

— < 보 기 > —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ㅌ’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가로: [+ 경구개음], [-후음]
- ② 미비: [-경구개음], [+후음]
- ③ 부고: [+양순음], [-치조음]
- ④ 효과: [-후음], [-연구개음]

4. [정답] ③

[풀이]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부고’의 ‘ㅂ’은 양순음이고, ‘ㄱ’은 연구개음이다. 따라서 [+양순음], [-치조음](=[+연구개음])이라고 한 ③번이 적절하다.

[오답]

- ① 가로: [-경구개음](=[+연구개음]), [-후음](=[+치조음])
- ② 미비: [-경구개음](=[+양순음]), [-후음](=[+양순음])
- ④ 효과: [+후음], [+연구개음]

제1권 42쪽 밑에서 13번째 줄부터 일부 수정. 한자 추가.(이어지는 기호는 그대로)

- ㉠ 입술소리(양순음. 兩唇音)
- ㉡ 혀끝소리(설단음. 舌端音)(치조음. 齒槽音)
- ㉢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硬口蓋音)
- ㉣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軟口蓋音)
- ㉤ 목청소리(후두음. 喉頭音)

제1권 43쪽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국어 자음의 체계’에 한자 추가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입술 양순음 (兩脣音)	혀끝 치조음 (齒槽音)	거센입천장 경구개음 (硬口蓋音)	여린입천장 연구개음 (軟口蓋音)	목청 후두음 (喉頭音)
무성 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유성 음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5.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 ① 탈락: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첨가: ‘ㄴ’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 ③ 축약: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④ 교체(대치):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5. [정답] ①

[풀이]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으로,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닭, 값, 읊다, 읽고, 났게’ 등이 있다. 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는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음(連音)된다. 예를 들어, ‘넋이[넉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등은 자음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오답]

②: 예) 꽃잎[꼇닙], 들일[들닐→들릴], 물약[물낙→물략] 등.

③: ‘유기음화(有氣音化)’는 거센소리되기 현상,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예) 국화[구과], 만형[마형], 잡히다[자피다] 등.

④: 예) 신라[실라], 칼날[칼랄], 광한루[광할루] 등.

6.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추가)]

— < 보 기 > —

음운은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의 음운 변동을 겪는다. 이 음운 변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만[마지]’에서 ‘ㄷ’이 ‘ㅈ’으로 바뀌는 것처럼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 ‘갈-+-는[가는]’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처럼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현상, ‘비+물[빈물]’에서 ‘ㄴ’이 덧나는 것처럼 형태소가 결합할 때 어떤 음운이 덧붙는 첨가 현상, ‘많-+-고[만코]’에서 ‘ㅎ’과 ‘ㄱ’이 만나 ‘ㄱ’으로 합쳐지는 것처럼 어떤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첨가 현상의 예로 ㉠을/를 들 수 있다.

- | | |
|-------|-------|
| ① 국민 | ② 놓다 |
| ③ 숨이불 | ④ 의견란 |

6. [정답] ③

[풀이]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에 해당한다.

[오답] ‘국민[궁민]’은 비음화(교체), ‘놓다[노타]’는 자음 축약, ‘의견란[의:견난]’은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한다.

7. <보기>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와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2017 기상직 9급]

— < 보 기 > —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

- | | | | |
|------|------|------|------|
| ① 10 | ② 11 | ③ 12 | ④ 13 |
|------|------|------|------|

7. [정답] ③

[풀이] <보기>의 형태소는 ‘이, 고기, 는, 매우, 기름, 지, 다’의 7개이고, 단어는 ‘이, 고기, 는, 매우, 기름지다’의 5개이다. 따라서 형태소와 단어를 모두 더하면 12가 된다.

[참고] ‘기름지다’는 명사인 ‘기름’에 접미사 ‘-지(다)’가 결합해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는 ‘기름, 지, 다’의 3개로 나눈다. 비슷한 예로, ‘멋지다, 값지다’ 등이 있다.

8. 다음 <기준 ㉠>과 <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추가)]

<기준 ㉠>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기준 ㉡>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모두 실질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 ① 밤낮 ② 옛날
 ③ 함박눈 ④ 사냥꾼

8. [정답] ④

[풀이] ‘사냥꾼’은 어근인 ‘사냥’과 접사인 ‘-꾼’이 결합해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따라서 합성어인 <기준 ㉡>과 적절하지 않다.

[오답] ‘밤낮(명사+ 명사), 옛날(관형사+ 명사), 함박눈(명사+ 명사)’는 모두 실질형태소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제1권 62쪽 위에서 7번째 줄 ‘홀-’ 아래 줄에 2줄 추가(‘홀-’ 그대로 추가해 봄)

홀-	하나로 된	홀몸, 홀이불
강(強)-	매우 센, 호된	강염기, 강타자, 강행군
강-	마른, 물기가 없는/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강기침, 강더위, 강모/강술, 강밥, 강굴

9.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③ 강기침
 ④ 강행군

9. [정답] ③

[풀이] ‘강기침’은 ‘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때의 ‘강-’은 고유어 접두사이며,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예를 들어, ‘강모, 강서리’ 등이 있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한자 접두사 ‘강(強)-’이다.

- ① 강염기(強鹽基)[강념기]: <화학>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따위가 이에 속한다.
 ② 강타자(強打者): <운동>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
 ④ 강행군(強行軍): ㉠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 <군사>무리함을 무릅쓰고 보통 행군보다 멀리 또는 빨리 행군함. 또는 그런 행군.

[참고]

강추위: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
 강추위(強--): 눈이 오고 매운바람이 부는 심한 추위.

10.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과 ㉡으로 잘 분류한 것은? [2017 법원직 9급]

— <보기 1> —

어근과 어근의 형식적 결합 방식에 따라 합성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결합 방식이란 어근과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 즉 통사적 구성과 같고 다름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합성어의 각 구성 성분들이 가지는 배열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 ‘통사적 합성어’와 정상적인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 ㉡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 <보기 2> —

a. 새해 b. 힘들다 c. 접칼 d. 부슬비
 e. 돌아가다 f. 오르내리다

- | | |
|-----------|------------|
| ㉠ | ㉡ |
| ① a, e | b, c, d, f |
| ② a, b, e | c, d, f |
| ③ a, c, d | b, e, f |
| ④ b, e, f | a, c, d |

10. [정답] ②

[풀이] ‘새(관형사)+ 해(체언)’, ‘힘(주어)+ 들다(서술어)’, ‘돌-(용언 어간)+ -아(용언 어미)+ 가다(용언)’는 모두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 c. ‘접-(용언 어간)+ 칼(체언)’은 ‘접-’에 해당하는 어미를 생략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d. ‘부슬(부사)+ 비(체언)’은 부사와 체언의 결합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f. ‘오르-(용언 어간)+ 내리다(용언)’은 ‘오르-’에 해당하는 어미를 생략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1. 문장의 밑줄 친 부분 중 품사가 다른 것은? [2017 기상직 9급]

- ① 어머니는 당신께서 기른 채소를 종종 드셨어.
- ② 벌써 거기까지 갔을 리가 없지 않니?
- ③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참 시설이 좋아.

④ 대영아, 조기 한 두름만 사오너라.

11. [정답] ①

[풀이] ①번의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참고로,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다. ‘학교’는 자립 명사, ‘리(理)’, ‘두름’은 의존 명사이다.

12.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12. [정답] ②

[풀이] ‘㉠흐드러지다, ㉣충만하다, ㉤없는’은 성질이나 상태의 형용사이다. 현재형(‘-나다’, ‘-는다’), 명령형(‘-라’), 청유형(‘-자’), 관형사형(‘-는’)이 안 되면 형용사이다. 이때, ‘없다’는 ‘없는’이 되지만 ‘없는다’가 안 되므로 형용사이다.

[오답] ‘㉡찍은, ㉢설레는’은 동사이다. ‘찍은’은 ‘찍는’이 가능하다.

13.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2017 사인복지직 9급]

-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렵.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13. [정답] ①

[풀이] ‘읽어 보다’의 ‘보다’는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고, ‘더운가 보다’의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림פות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

나는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①번은 모두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 ②: ‘깨 먹었다’의 ‘먹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보조 동사이다. 하지만 ‘끓여 먹자’는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동사)과 본용언(동사)에 해당한다.
- ③: ‘가져다 드리렴’은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본용언과 본용언이다. 반면, ‘거들어 드린다’의 ‘드리다’는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 ④: ‘이것 말고’의 ‘말고’는 ‘아니고’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말다’의 활용이며, 용언이 하나만 나온 경우이므로 보조 용언이 아니다. 반면, ‘떨어지고 말았다’의 ‘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14.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14. [정답] ③

[풀이] 제시문과 ③번의 ‘고치다’는 모두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는 뜻이다.

[오답]

-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 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15.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7 사회복지직 9급]

-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15. [정답] ①

[풀이] ‘비가 오는’이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문장 성분이 결여된 것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다.

[오답] 나머지는 성분의 일부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②번은 ‘(양복을) 맞춘’, ③번은 ‘(지갑을) 주운’, ④번은 ‘(사람을) 만났던’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1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홑문장이 뒤의 홑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①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②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 ③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 ④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16. [정답] ①

[풀이]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내용상 ‘나는 밥을 먹은 후(先) 학교에 갔다(後).’이므로 앞 절이 뒤 절을 꾸며 주고 있다. 이 문장의 ‘-고’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출근했다.’ 역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

[참고] ‘나는 밥을 먹었고, 친구는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이었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④: ‘A했는데 B했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7.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높임말의 종류가 일치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2017 기상직 9급]

< 보 기 >

ㄱ. 애들아, 우리 빨리 이 과제 끝내자.

ㄴ.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ㄹ.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께 여쭙 보는 게 좋겠어.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17. [정답] ②

[풀이] ‘ㄴ’과 ‘ㄷ’은 주체, 상대, 객체 높임이 모두 사용된 경우이다. ‘ㄴ’은 ‘께서, -시-’의 주체 높임, ‘하셨습니다’의 상대 높임(해요체), ‘께, 드리다’의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ㄷ’도 ‘께서, -시-’의 주체 높임, ‘싶습니다’의 상대 높임(하십시오체), ‘(할아버지

를) 뵙고'의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오답] 'ㄱ'은 '끝내자'의 상대 높임(해라체)이 사용되었고, 'ㄹ'은 '종겠어'는 상대 높임(해체), '께, 여쭙다'의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1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즈이 나온다. (기본형: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18. [정답] ②

[풀이] '(국수가) 불은'의 기본형은 '불다'이다. 'ㄷ' 불규칙 용언이므로 'ㄹ'로 활용한 것이다. '불고, 불는, 불어, 불었다' 등으로 활용된다. 비슷한 예로, '밥이 높다' 역시 '늘은, 늘어, 높였다, 늘는, 높고' 등으로 활용이 된다.

[오답]

- ①: '갈다'는 'ㄹ' 탈락 용언이므로 '가니, 가는, 갈고, 갈았다' 등으로 활용한다.
- ③: '(~에게) 이르다'는 'ㄹ' 불규칙 용언이므로 '일러, 일렀고, 일렀다' 등으로 활용된다. 참고로, '(목적지에) 이르다'는 '이르러'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 ④: '들르다'는 'ㄹ' 탈락 용언이므로 '들러, 들러서, 들렀다'로 활용한다.

19.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 첫사랑	㉡ 횃수	㉢ 등곶길	㉣ 소나깃밥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19. [정답] ③

[풀이] '횃수(回數), 등곶길(登校-)'은 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다.

[오답] ㉠ '첫사랑'은 관형사 '첫'과 체언이 결합해 이루어진 합성어일 뿐 사이시옷이 아니다. ㉣은 '소나기밥[소나기밥]'이 맞고, '소나깃밥'은 틀리다. 발음상 'ㄴ' 첨가가 되지 않는 것은 사이시옷이 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나기밥'은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을 뜻한다.

20.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생각컨대’, ㉡‘훗대’, ㉢‘뒷세상’, ㉣‘어떻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법원직 9급]

— < 보 기 >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췌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뻗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깨엿, 뒷옷, 두렛일, 뒷일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췌병, 머릿방, 뺏병, 붓둑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겻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ㅇ’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간편하게→간편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붙임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얹다, 얹고, 얹지, 얹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붙임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 ① ㉠은 ‘생각하컨대’의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생각컨대’로 수정해야겠군.
- ② ㉡은 두 음절의 한자어이므로 ‘훗대’가 아닌 ‘후대’로 수정해야겠군.
- ③ ㉢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뒷세상’은 적절한 표기이군.
- ④ ㉣은 ‘어떠하게’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어떻게’로 줄어진

경우로 적절한 표기이군.

20. [정답] ①

[풀이]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가 맞는 말이다. ‘○○하다’가 줄어들 때는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와 ‘하’의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하’가 통째로 주는 경우는 안울림소리 ‘ㄱ, ㄷ, ㅂ, ㅅ’ 받침 다음에 ‘하-’가 올 때이다. 예를 들어, ‘거북지’, ‘깨끗지’, ‘생각건대’, ‘답답다 못해’ 등이 있다. ‘ㅎ’이 남아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결합하는 경우는 ‘간편케’, ‘다정타’, ‘혼타’ 등이 있다.

21.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17 사인복지직 9급]

-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
-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찍어 있다.
-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21. [정답] ③

[풀이] ‘(글씨가) 찍어(=쓰여)’는 ‘쓰이다’의 준말이므로 표기가 적절하다. 만약, ‘찍여’라고 표기되었다면 틀리다.

[오답] ①: 가까왔다(O). ②: 잘돼서(=잘되어서)(O). ④: 생각건대(O).

22.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22. [정답] ③

[풀이] ‘잠그다’는 ‘으’ 탈락 용언이므로 ‘잠가’, ‘잠가서’, ‘잠갔다’로 활용한다. 참고로, ‘잠귀’, ‘잠귀서’, ‘잠꿔다’는 틀리다. 비슷한 예로, ‘담가(담그다), 치러(치르다)’도 있다.

[오답] ①: ‘(병이) 나왔다’가 맞다. 기본형은 ‘낳다’이다. ②: ‘넉넉지’. ④: ‘이어서’가 맞다. 기본형은 ‘잇다’이다.

2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사인복지직 9급]

-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귤 들이 많이 있다.
-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

23. [정답] ②

[풀이] ②번의 ‘들’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참고로, ‘사람들, 친구들’ 등의 ‘-들’은 복수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①: ‘장대만큼’의 ‘만큼’은 체언 뒤에 오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③: ‘세 시간 만에’의 ‘만’은 시간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대답이 맞는지’의 ‘-는지’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2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24. [정답] ①

[풀이] ‘한밤중(--中)’은 한 단어로 굳어진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비슷한 예로, ‘은연중, 무의식중, 부재중’ 등이 있다. 하지만 ‘사용 중, 공부 중, 회의 중, 식사 중’ 등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②: ‘잘할뿐더러’가 맞다. ‘-르뿐더러’는 특수 어미이므로 항상 붙여 써야 한다.

③: ‘두 시간 만에’가 맞다. 시간 뒤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잘 안된다’가 맞다. ‘안되다’가 ‘일, 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를 뜻할 때는 한 단어의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그 이외에도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를 뜻할 때도 한 단어이다.

25.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① 공부를V조금V더V열심히V할걸.

② 선생님이V떠난V지도V오래되였다.

③ 키가V쿨수록V농구를V잘한다는V말은V거짓이다.

④ 나는V오늘V저녁에V엄마를V도와V요리를V할거야.

25. [정답] ④

[풀이] ‘할 거야.’의 ‘거야’는 ‘것이야’의 구어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만약, ‘할게.’, ‘할걸.’

등의 표기였다면 ‘-르게.’, ‘-르걸.’이 종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 ①: ‘-르걸.’은 종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참고로, ‘열심히 할 걸 그랬어.’의 ‘걸’은 ‘것을’의 줄임말이므로 띄어 쓴다.
- ③: ‘-르수록’은 어미이므로 붙여 쓰고, ‘잘한다’는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는 뜻의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241쪽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들’ 밑의 ①번 내용 수정해야 함.

①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에는 붙여 써 왔지만 **2017년 5월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의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붙여 쓰게 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외래어에 붙을 때	그리스 어, 그리스 인, 게르만 족, 발트 해, 나일 강, 에베레스트 산, 발리 섬, 우랄 산맥, 테칸 고원, 도카치 평야	그리스어, 그리스인, 게르만족, 발트해, 나일강, 에베레스트산, 발리섬, 우랄산맥, 테칸고원, 도카치평야
비외래어에 붙을 때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 낙동강, 설악산, 남이섬, 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 낙동강, 설악산, 남이섬, 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제1권 268쪽 다음(269쪽 맨 처음)에 <2016년 표준어 추가>라고 새로 넣고 내용 추가.(267쪽 맨 위처럼 하면 됨.)

<2016년 추가 표준어>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결판지다, 걸울음, 까탈스럽다, 실뭉치, 엘랑, 주책이다’ 등 6항목의 어휘를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 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할 예정이다.

○ 추가 표준어(4항목)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결판지다	거방지다	결판지다 [형용사] ① 매우 푸지다. ㉠ 술상이 결판지다 / 마침 눈먼 돈이 생긴 것도 있으니 오늘 저녁은 내가 결판지게 사지.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ㅁ 싸움판은 자못 겉판저서 구경거리였다. / 소리판은 옛날이 겉판지고 소리할 맛이 났었지.
		거방지다 [형용사] ① 몸집이 크다.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③ =겉판지다①.
겉울음	건울음	겉울음 [명사]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ㅁ 꼭꼭 참고만 있다 보면 간혹 속울음이 겉울음으로 터질 때가 있다. ②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ㅁ 눈물도 안 나면서 슬픈 척 겉울음 울지 마.
		건울음 [명사] =강울음. 강울음 [명사] 눈물 없이 우는 울음,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형용사]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ㅁ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치다 /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 가스레인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지루하고 까탈스러운 숯 굽기 작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비칠 수도 있겠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ㅁ 까탈스러운 입맛 / 성격이 까탈스럽다 / 딸아이는 사 준 옷이 맘에 안 든다고 까탈스럽게 굴었다. ※ 같은 계열의 '가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까다롭다 [형용사] ①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실뭉치	실뭉당이	실뭉치 [명사]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 ㅁ 뒤엀킨 실뭉치 / 실뭉치 를 풀다 / 그의 머릿속은 엉클어진 실뭉치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실뭉당이 [명사]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

○ 추가 표준형(2항목)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	-----------	----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엘랑	에는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엘랑' 외에도 'ㄹ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엘랑, -고설랑' 등은 단순한 조사/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교실에설랑 떠들지 마라. 나를 앞에 앉혀놓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
주책이다	주책없다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주책이다'는 '일정한 쯤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주책이다'는 단순한 명사+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도 참 주책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사용이 옳은 것은? [2017 국외직 8급]

- 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② 스스로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다.
- ③ 우리 명산에는 곳곳에 사찰이 깃들여 있다.
- ④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아주머니도 참 주책이셔.
- 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26. [정답] ④

[풀이] '주책이다'는 2016년 12월에 표준어로 인정된 예이다. 기존의 '주책없다'뿐만 아니라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모두 표준어가 된다.

[오답]

- ①: '(이 자리를) 빌려서'로 고쳐야 한다.
- ②: '(스스로) ~ 깨치다'로 고쳐야 한다. '깨치다'는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 알다.'는 뜻이다. 참고로, '깨우치다'는 '깨달아 알게 하다.'는 뜻이며, '동생의 잘못을 깨우쳐 준다.'의 형태로 쓰인다.
- ③: '(사찰이) 깃들여 있다'로 고쳐야 한다. '깃들이다'는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

나 그곳에 자리 잡다.’는 뜻이며, 예를 들어 ‘이 마을에는 김씨 성의 사람들만 몇 대째 깃들여 산다.’ 등으로 쓰인다. 또한,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는 뜻도 있고, 예를 들어 ‘까마귀가 버드나무에 깃들었다.’ 등으로 쓰인다.

- ⑤: ‘~강의를 하고 계신 가운데(=중에)’로 고쳐야 한다. ‘와중(渦中)’은 주로 ‘와중에’의 꼴로 쓰여,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를 뜻한다. 강의를 하는 상황이 시끄럽고 복잡한 것은 아니므로 보편적인 의미인 ‘가운데(=중에)’가 적절하다.

[참고] 깃들다: ① 아늑하게 서려 들다. 예) 어둠이 깃든 방 안. ②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미다. 예) 마음속에 추억이 깃들여 있다.

2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사회복지직 9급]

— < 보 기 > —

- ㉠ 낮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폭 쉬고 온다?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① ㉠: 쉼표를 보니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② ㉡: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③ ㉢: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정답] ①

[풀이] ①번은 쉼표를 넣음으로써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낮익은’ 뒤에 쉼표가 있으므로 ‘철수’가 아니라 ‘철수의 동생’을 수식한다. 참고로, ‘낮익은 철수의, 동생’처럼 쉼표가 들어 있다면 ‘낮익은’의 주체는 ‘철수’가 된다.

[오답]

- ②: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서문이라도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물음표를 쓴다.
 ④: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작은따옴표를 쓴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명태 한 마리 놓고 ㉠판전 본다.
그 사람은 일부러 ㉡판청을 부렸다.

- ① ㉠의 어원적 의미는 ‘다른 가게’이다.
- ② ㉠은 비표준어이고 ㉡은 표준어이다.
- ③ ㉠과 ㉡의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이다.
- ④ ㉡은 ‘피우다’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28. [정답] ②

[풀이] ‘판전’과 ‘판청’은 표준어 26항에 있는 복수 표준어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을 뜻하며, ‘판전(판청) 부리다(피우다)’의 형태로 쓰인다.

[오답] ①: ‘판’은 ‘판마음’ ‘판살림’ ‘판판’의 ‘판’이다. ‘전’은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가게 [廛]를 뜻한다. 즉, 판전은 ‘다른 가게’라는 의미다. 주된 가게 외에 별도로 마련한 가게여서 덜 중요시하게 된다. 여기서 ‘관계없는 행동’이라는 뜻이 생겨났다.

29.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2017 기상직 9급]

- ① 까짓것,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 ② 그런 갈잡은 일로 입씨름할 필요는 없다.
- ③ 형편이 엥간하면 나도 돕고 싶네만, 그럴 수 없어 미안하네.
- ④ 아침부터 하늘이 끄물끄물하더니 마침내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29. [정답] ③

[풀이] ‘엥간하면’이 맞고, ‘엥간하면’은 틀리다. ‘엥간하다’는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오답]

- ①: ‘까짓것’은 맞고, ‘까짓것’은 틀리다. ‘까짓것’은 ‘별것 아닌 것’을 뜻하는 명사 또는 맨 앞에 쓰여 ‘까짓’을 뜻하는 감탄사이다.
- ②: ‘갈잡은’은 ‘갈지 않다’의 준말인 ‘갈잡다’에서 온 형용사이다. ‘하는 것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사납다.’ 또는 ‘말하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 되다.’는 뜻이다.
- ④: ‘(하늘이) 끄물끄물하다’는 맞고, ‘(하늘이) 꾸물꾸물하다’는 틀리다. ‘날씨가 활짝 개지 않고 몹시 흐려지다.’는 뜻의 동사이며, ‘그물그물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참고로, ‘매우 자꾸 느리게 움직이다.’, ‘굵뜨고 게으르게 행동하다.’는 뜻의 단어는 ‘꾸물꾸물하다’이다.

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한다.

④: ‘되어’는 [되어]로 발음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되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33.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33. [정답] ③

[풀이]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7개만을 쓴다. 제시문에 있는 ‘ㄷ’이 빠져야 한다.

34. <보기>의 로마자 표기법을 고려할 때,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추가)]

< 보 기 >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① 민용하 MinYongHa ② 종로 2가 Jongno 2(i)-ga
③ 삼죽면 Samjung-myeon ④ 홍빛나 Hong Binna

34. [정답] ②

[풀이] ‘종로[종노] 2가’는 붙임표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화이므로 표기에 발음을 반영해 ‘Jongno 2(i)-ga’로 적는다.

[오답]

①: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민용하는 ‘Min Yongha’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Min Yong-ha’로 적는 것을 허용한다.

③: 제5항을 통해 삼죽면은 ‘Samjuk-myeon’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4항(1)을 통해 홍빛나는 ‘Hong Bitna’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Hong Bit-na’로 적는 것을 허용한다.

1권 끝.

※ <2018 정상국어> 2권 추록 총정리 26문제

1.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吾 <u>盼</u> 不 <u>喻</u> 慙 <u>盼</u> 伊 <u>賜</u> 等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	
花 <u>盼</u> 折 <u>叱</u> 可 <u>獻</u> 乎 <u>理</u> 音如	고졸 것거 바도림다
㉡ ㉢ ㉣	

- ① ㉠ ② ㉡ ③ ㉢ ④ ㉣

1. [정답] ③

[풀이] 제시문은 4구체 향가인 ‘헌화가(獻花歌)’의 일부이다. ㉡‘折(꺾을 절)’은 실질적 의미에 해당하므로 훈차(訓借)를 한 경우이고, 나머지 ㉠‘賜(줄 사)’, ㉢‘盼(소리 올릴 힐)’, ㉣‘可(옳을 가)’는 모두 형식적인 의미에 해당하므로 음차(音借)를 한 경우이다.

[참고 1]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표기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적 요소(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는 훈독(訓讀) 표기법을,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적 요소(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 표기하는 음독(音讀)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보통 첫음절은 실질적인 의미에 해당하므로 훈독(訓讀)이 된다.

[참고 2] 건우 노인, ‘헌화가(獻花歌)’

紫布岩乎邊希(자포암호변희)	지뵈 바희 ㄱ새
執音乎手母牛放教遣(집음호수모우방교견)	자브문손 암쇼 노히시고
吾盼不喻慙盼伊賜等(오힐불유참힐이사등)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화힐절질가헌호리음여)	고졸 것거 바도림다
(밑줄은 음독(音讀)임.)	
자줏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훈독(訓讀): 紫(자줏빛 자), 岩(바위 암), 邊(가 변), 執(잡을 집), 手(손 수), 母(어머니 모), 牛(소 우), 放(놓을 방), 教(가르칠 교), 吾(나 오), 不(아니 불), 慙(부끄러울 참), 花(꽃 화), 折(꺾을 절), 獻(드릴 헌), 如(다울 여).	
음독(音讀): 布(베 포), 乎(어조사 호), 希(바랄 희), 音(소리 음), 乎(어조사 호), 遣(보낼 견), 盼(소리 올릴 힐), 喻(깨우칠 유), 盼(소리 올릴 힐), 伊(저 이), 賜(줄 사), 等(무리 등), 盼(소리 올릴 힐), 叱(꾸짖을 질), 可(옳을 가), 乎(어조사 호), 理(다스릴 리), 音(소리 음).	
주제: ①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 ② 꽃을 바치며 사랑을 고백함.	

2권 41쪽과 42쪽 사이에 타이틀 및 내용 추가

<제6절> 어휘론

1. 중세 국어(전기)

- ① 몽골어 차용어: 고려와 원의 접촉으로 인해 국어에 흔적을 남긴 몽골어 차용어는 말과 매, 군사에 관한 용어에 국한되어 있음
 - ㉠ ‘말’에 관한 단어: ‘아질게물(兒馬. ajirya. 길들지 않은 작은 말), 가라물(黑馬 qara. 털빛이 온통 검은 말)’ 등
 - ㉡ ‘매’에 관한 단어: ‘보라매(秋鷹 boro), 송골(海靑, šingqor, šongqor)’ 등
 - ㉢ 음식에 관한 단어: 수라(水刺▽)
- ② 여진어 차용어: 주로 함경도 지명에 흔적을 남김
 - ㉠ ‘두만강(豆滿江)’은 여진어 ‘土滿’에서 온 것.
- ③ 한자어: 중세국어에 와서 한자어가 급증
 - ㉠ 고려 광종 9년(958)부터 실시한 과거제도도 하나의 자극이 되어 거의 모든 문화적, 학술적 용어는 한자어에 의함으로써 국어는 엄청난 한자어에 압도되기 시작
 - ㉡ 한자 어휘는 우월한 상류 계급의 것으로 일반 평민의 모방의 대상이 되고, 국어 어휘는 한자어에 밀려 소멸의 운명을 밟기 시작함.

2. 근대국어

(1) 고유어와 한자어

- ① 많은 순수 국어 단어들이 한자어로 대체되었고, 한자어로 대체되지 않고 폐어가 된 것들도 있음
- ② 고유어 어휘의 의미 변화: ‘어엿브-’, ‘어리-’ 등

(2) 중국어 차용어

- ① 근대어 시기에도 중국어가 차용어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 ② 예) 비단, 탕건, 무명, 보리 등

(3) 만주어 차용어

- ① 차용어의 또 하나의 공급원은 만주어(청어)
- ② 예) 쿠리매, 마흐래 등

(4) 새로운 어휘

- ① 서양으로부터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음
- ② 주로 북경을 통해 기계, 지도, 천문지리서, 과학서, 종교에 관한 서적 등이 유입되며 새로운 단어도 함께 들어옴
- ③ ‘담배’도 이 시기에 들어온 단어

4. 다음 <보기>의 외래어들이 한국어 어휘에 유입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7 기상직 9급]

< 보 기 >

- ㉠ 분[筆], 먹[墨]
- ㉡ 탕건[唐巾], 담배
- ㉢ 바리깡, 구락부
- ㉣ 아질게말[兒馬], 보라매[秋鷹]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4. [정답] ②

[풀이] 차용어(借用語)의 유입 시기를 묻는 문제이다. ‘①고대국어→②중세국어→③근대국어→④현대국어’의 순서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 ① 고대국어에 중국어 차용어인 ‘분[筆]’, ‘먹[墨]’ 등이 있었다.
- ② 중세국어인 13, 14세기에는 원(元)과의 접촉이 밀접해지면서 몽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말, 매’ 관련 단어이다. ‘아질게말(兒馬. ajirya. 길들지 않은 작은 말), 가라말(黑馬 qara. 털빛이 온통 검은 말)’ 등의 ‘말[馬]’ 관련 단어와 ‘보라매(秋鷹 boro), 송골(海靑, šingqor, šongqor)’ 등은 ‘매[鷹. 매 응]’ 관련 차용어이다.
- ③ 근대 국어 시기에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한자어의 유입이 집중되는데, 임진왜란 후 ‘탕건(唐巾.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담배’ 같은 어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이외에도 ‘감자, 강냉이(옥수수), 고추, 고구마, 안경’ 같은 어휘가 있다.
- ④ 1900년대 전후 개화기 때 일본식 어휘가 유입되었다. ‘바리깡(바리깡[프랑스어] bariquant. ‘이발기’로 순화)’은 일본식 어휘이고, ‘구락부(俱樂部)’는 ‘클럽(club)’의 일본식 음역어이다.

5.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5. [정답] ②

[풀이]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올바른 문장이다.

만약, ‘~되어져 왔다.’라고 했다면 이중의 피동으로 틀린 표현이 된다.

[오답]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을 알고(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로 고쳐야 한다.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결코) 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6.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6. [정답] ③

[풀이] 제시문은 ‘동물의 소리는 인간의 언어와 다르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과 ㉡은 동물들의 소리가 인간과 유사한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 동물의 소리가 인간의 말과는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 ①: ㉠은 글의 도입이므로 결론이 아니다.
- ②: ㉡은 ㉠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 ④: ㉤은 ㉢과 ㉣에 대한 결론이다.

7.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2017 국가직 9급]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 에서 비롯 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 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 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 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 하는 셈이 된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나)-(라)-(다)
- ③ (가)-(다)-(나)-(라)
- ④ (가)-(라)-(나)-(다)

7. [정답] ②

[풀이] 제시문은 『장자(莊子)』의 내편(內篇) 중 ‘제물론(齊物論)’의 일부분이다. 변증법적 인 역설의 논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와 (나)는 도입 부분으로, 혜시(사람 이름)가 말 하는 ‘사물의 상대성’에 대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라)와 (다)에서 이 극단의 상대성을 반박하고 변증법적 결론(조화, 통합, 절충)에 도달하고 있다.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示空 空卽示色)’의 논리와도 같다. 따라서 (가)-(나)-(라)-(다)가 적절하다.

8. (가)~(라)를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2017 기상직 9급]

(가)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 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 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 다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 박탈당하는 것을 감

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나)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富),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라)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라) - (가) - (다) - (나)
- ③ (가) - (다) - (라) - (나)
- ④ (라) - (나) - (가) - (다)

8. [정답] ④

[풀이] 제시된 글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일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단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도입-전개-상반된 내용’의 흐름을 확인하면 된다. (라)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는 도입 부분이고, (나)는 ‘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개하며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준다’는 행위를 ‘교환’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가)에서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준다는 것’을 ‘희생, 고통, 박탈’로 인식한다고 본다. 반면, (다)에서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준다는 것’을 환희, 즐거움으로 느낀다고 본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라)-(나)-(가)-(다)’가 된다.

[참고]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주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빠지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고 전환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접속어로 짝지어진 것은? [2017 법원직 9급]

동양에서 ‘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인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도(道)란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을 일정한 지점으로 이끄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본래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고 풍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길이라는 의미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것은 아니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을 통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확대되어 길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길은 목적지와 연결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이 곧 목적지 위에 있다는 말과도 같다. 여기로부터 길은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

도가 확대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유가(儒家)에서는 천도(天道)라는 말을 인도(人道)와 구분하여 사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천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궁극의 존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담당하며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는, 천지 만물의 원초적 근원자인 하늘이다. (㉠) 하늘의 길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길이며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길, 즉 사람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 늘 실천해야 하는 예의 규범, 도덕 원칙을 뜻하는 인도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춘추 시대 때 유가에서는 자연이나 초자연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천도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음양가(陰陽家)는 사회적 문제보다는 자연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한나라 때의 동중서는 이 둘을 합하여 천인감응의 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문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에게 바른 도리를 알려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 이를 잘 살펴서 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하면 사람의 도는 하늘의 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 하늘과 감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인감응은 하늘을 대신하는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왕이다. 제왕의 정치가 바르면 하늘은 상서로운 구름과 알맞게 내리는 비로써 제왕의 덕을 칭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연재해로써 견책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인감응의 설은 제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이었다.

(㉢)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여기에 깊은 의문을 가졌다. 제왕만이 하늘의 이치와 합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바른 도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송나라의 유학자들이 찾은 답은 하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을 주었으며, 사람은 이를 따르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이다. 하늘이 준 성은 곧 하늘의 이치, 곧 천도를 말한다.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릇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이것은 사람의 도리, 곧 인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천도와 인도의 합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윤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

㉢

① 그래서 - 그러므로 - 그런데

- ② 그래서 - 그런데 - 그러므로
- ③ 그런데 - 그러므로 - 그래서
- ④ 그런데 - 그래서 - 그러므로

9. [정답] ①

[풀이] ㉔의 앞에서는 천도가 곧 하늘임을 설명하였다. 뒤에서는 하늘이 우주 만물의 원리라고 하고 있으므로 ㉔에는 근거에 해당하는 ‘그래서’가 적절하다. ㉕의 앞에는 천문 현상이 사람에 바른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이는 뒤에 이어지는 사람의 도에 해당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결과인 ㉕에는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그리고 ㉔의 앞 내용은 천인감응이 제왕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㉔이후의 내용은 송나라 유학자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전환(轉換)에 해당하는 ‘그런데’가 적절하다.

1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사회복지직 9급]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 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

10. [정답] ②

[풀이] 통념 비판형 글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이 말살되고 획일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1. 다음은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한 방식에 대하여 쓴 글이다. 해당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을 붙이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기상직 9급]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꽤나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안부를 묻는 것도, 새해 인사도,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합격이나 불합격, 해고 통지도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행동이나 표정을 살필 일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그 미묘한 마음의 디테일 역시 읽을 일이 없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정의 낭비가 없다. 이모티콘으로 최소한의 감정을 전달하지만 그런 문자 감정 기호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축소돼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모든 감정 기호는 사실은 위안과 안심의 기호다. 문자 기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격앙된 감정을 자제한다.

화를 내거나 우울한 기분을 전하는 기호조차 귀엽게 포장된다. 정말 화를 내고 싶으면 이모티콘이 아니라 욕을 써 버리면 되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진짜 욕, 진짜 화, 진짜 슬픔, 진짜 불안을 기호화한 이모티콘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 모든 감정 기호는 사실 ‘좋아요’의 아류일 뿐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다는 것이다. 문자 기호의 커뮤니케이션은 소리 기호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며, 따라서 절제와 세련됨을 요구한다.

- ①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 ② 이모티콘의 의미와 기능
- ③ 위안과 안심의 감정 기호
- ④ 감정을 감추는 세련된 기호

11. [정답] ④

[풀이] 제시문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이 감정을 자제하고 감추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절제와 세련된 기호로 감정을 감추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은 ‘감정을 감추는 세련된 기호’가 적절하다.

[오답]

- ①: 포괄적인 소재에 불과하므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일부의 내용에 불과하다.

12.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위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12. [정답] ④

[풀이] 제시문은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글이다.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③번은 일치하지 않다.

13. (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기생직 9급]

(가) 미켈란젤로는 예술계의 위대한 거인이다. 이탈리아 인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대표작인 <피에타> 앞에 서면, 누구라도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은 우리 위의 저 높은 곳에 엄숙하게 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참 왜소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 작품과 함께 더 큰 무엇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깊은 외로움에 충격을 받았다. 마리아는 아름답지만 슬픔에 잠긴 산이고, 예수는 그 아래를 흐르는 큰 강처럼 보인다. 살아 있는 마리아와 죽은 예수는 고립되어 있지만, 둘은 서로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연결

되어 있다.

- 웬디 베게트, '웬디 수녀의 유럽 미술산책' -

(나) 미켈란젤로는 '신의 어머니는 지상의 어머니처럼 울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는 움직임이 없고, 오직 내려 뜨려진 왼손만이 말을 하고 있다. 절반쯤 벌린 손은 말없는 고통의 독백을 따라가는 중이다. 그것은 16세기의 감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 작품은 15세기 피렌체 양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의 머리는 다른 어떤 머리보다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 피렌체 사람들이 사랑했던 가늘고 섬세한 유형이다. <중략> 의상 부분은 약간 지나치게 풍성하다. 밝은 주름의 돌출부와 깊고도 그늘지게 겹친 부분들이 16세기 조각가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것이다. 뒷날에도 그렇지만 대리석은 강하게 연마되어서 대단히 반짝이는 광채를 드러낸다. 도금의 흔적은 전혀 없다.

- 하인리히 뵐플린, '르네상스의 미술' -

- ①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공통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감상 태도로 서로 다른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글쓰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대의 차이에 따른 감상 및 비평 방법의 변화를 보여준다.

13. [정답] ③

[풀이] 제시문 (가), (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인 '피에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가)는 작품 속의 마리아에 대해 '경외심, 충격' 등의 주관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고, (나)는 작품 속의 마리아를 시대별로 고찰하며 형식적인 면에서 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은 동일한 대상인 '마리아'에 대해 다른 글쓰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며, '시대의 차이에 따른 감상 방법의 변화'도 아니다.

14. 논증의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 ① 정선, 김홍도, 신윤복, 강희안, 장승업 등은 모두 탁월한 화가들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지닌 민족이다.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② 지난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모두 26명이다. 그중 남학생이 18명이고 여학생이 8명이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업에 소홀했다. → 원천 봉쇄의 오류
- ③ 참된 능력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이 내세우지 않아도 그 재능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의 재능을 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 순환 논증의 오류
- ④ 우리 사회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대학이 유능한 전문기능인을 길러 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전인 교육보다 기능 교육이 중시되기를 사회는 대학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기능 교육만을 담당할 수는 없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며, 학문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대학이 진리 탐구를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을 때 상아탑의 이념은

없어지고 만다.

→ 논점 이탈의 오류

14. [정답] ②

[풀이] 남학생 몇 명과 여학생 몇 명의 자료만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방식으로, 소수의 정보, 충분하지 않은 자료,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 등 일부의 특수한 경우만을 근거로 하여 성급하게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이다.

[참고] 원천 봉쇄의 오류: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반론의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논지를 옹호하는 오류. 예) 상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정책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5. 토론에서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 ①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 ②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을 정리한다.
- ③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 ④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15. [정답] ③

[풀이] 토론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9급]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16. [정답] ①

[풀이]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예를 들어, ‘그는 말을 시망스럽게 해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형태로 쓰인다.

[오답] ②: 활발(活潑)하다. ③: 산만(散漫)하다. ④: 잔망(孱妄)스럽다.

17.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사회복지직 9급]

- ①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람없다: 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③ 국으로: 제 생긴 그대로
- ④ 짜장: 과연 정말로

17. [정답] ②

[풀이] 고유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무람없다’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예를 들어, ‘제 행동이 다소 버릇없고 무람없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등의 형태로 쓰인다. 참고로, ‘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의 단어는 ‘투박하다’이다.

[오답]

- ①: 예) 구석에 놓여 있던 자리끼를 말끔히 마셔 버렸다.
- ③: 예) 국으로 가만히 있어라.(부사)
- ④: 예) 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부사)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探險(탐험)－矛盾(모순)－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惹起(야기)－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破綻(파탄)－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惡寒(악한)－奢侈(사치)

18. [정답] ①

[풀이] ‘탐험(探險), 모순(矛盾), 화폐(貨幣)’는 독음이 모두 적절하다.

탐험(探險)(찾을 탐, 험할 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모순(矛盾)(창 모, 방패 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화폐(貨幣)(재물 화, 화폐 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주화, 지폐, 은행권 따위가 있다.

[오답]

- ②: 사기(詐欺)(속일 사, 속일 기), 야기(惹起)(이끌 야, 일어날 기), 작열(灼熱)(불사를 작, 더울 열). [참고] 치열(熾烈)(성할 치, 매울 열):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같이 맹렬함.
- ③: 형근(荊棘)(가시나무 형, 가시 근), 파탄(破綻)(깨뜨릴 파, 터질 탄), 통찰(洞察)(밝을 통, 살필 찰). [참고] 刺(찌를 자).
- ④: 잠언(箴言)(경계 잠, 말씀 언), 오한(惡寒)(병 이름 오, 찰 한), 사치(奢侈)(사치할 사, 사치할 치). [참고] 악한(惡漢):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

19.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2017 국가직 9급]

< 보 기 >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 | ㉢ | ㉣ |
|------|----|----|----|
| ① 說明 | 描寫 | 敘事 | 論證 |
| ② 設明 | 描寫 | 敘事 | 論症 |
| ③ 說明 | 猫鯊 | 徐事 | 論症 |
| ④ 說明 | 猫鯊 | 徐事 | 論證 |

19. [정답] ①

[풀이] ‘설명(說明), 묘사(描寫), 서사(敘事), 논증(論證)’로 표기해야 한다.

- 설명(說明)(말씀 설, 밝을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묘사(描寫)(그릴 묘, 베낄 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그려 냄’으로 순화.
- 서사(敘事)(펼 서, 일 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논증(論證)(논할 논, 증거 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오답]

- ‘설명(設明)’이라는 단어는 없음. 설(設): 세울 설.
- 묘사(猫鯊)(고양이 묘, 상어 사): <동물> [같은 말] 뱀상어(뱀상어과의 바닷물고기).
- 서사(徐事)(천천히 할 서, 일 사): <역사> 태봉에서, 광평성의 둘째 벼슬. 고려의 시랑(侍郞)과 같다.
- 논증(論症)(논할 논, 병 증): 병의 증세를 논술함.

20.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2017 사회복지직 9급]

-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20. [정답] ①

[풀이] ‘변명(辨明)’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을 뜻한다. 이때 ‘변(辨)’은 ‘분별할 변, 나눌 변, 밝힐 변, 따질 변’에 해당한다. 참고로, ‘변명할 길이 없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를 ‘변명무로(辨明無路)’라고 한다.

[참고]

변(辨)(나눌 변): 변별(辨別), 사변(思辨), 변리사(辨理士), 변상(辨償), 변제(辨濟) 등.

변(辯)(말씀 변): 변호(辯護), 변론(辯論), 변호사(辯護士), 달변(達辯), 궤변(詭辯) 등
[오답]

② 인식(認識)(알 인, 알 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③ 대처(對處)(대할 대, 처리할 처):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참고]
대처(大處): 도회지(都會地)(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④ 선양(宣揚)(떨칠 선, 날릴 양):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참고] 선양(禪讓)(물려줄 선, 사양할 양): 양위(讓位)(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21.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주의’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2017 기상직 9급]

< 보 기 >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주의는 과잉 주의에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다. 다양한 과업, 정보 원천과 처리 과정 사이에서 빠르게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이러한 산만한 주의의 특징이다. 그것은 심심한 것에 대해 거의 참을성이 없는 까닭에 창조적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저 깊은 심심함도 허용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자아에게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 ① 主意 ② 主義 ③ 注意 ④ 注義

21. [정답] ③

[풀이] 주의(注意)(부을 주, 생각 의):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예) 주의 사항.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예) 주의 깊게 듣다.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예) 주의를 받다.

[오답]

① 주의(主意): ㉠주된 의미. ㉡이성이나 감성보다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

② 주의(主義):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 예) 주의 주장이 강한 사람.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 예) 민주주의(民主主義).

22.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사회복지직 9급]

① 그 사람은 입이 밍글해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③ 이번 일은 내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22. [정답] ④

[풀이] ‘땀을 들이다’는 관용구는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 ‘잠시 휴식하다’는 뜻이다.

[오답]

- ①: ‘입이 발다’의 ‘발다’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는 뜻이다.
②: ‘흰 눈으로 보다’는 한자어로 ‘백안시(白眼視)’이다.
③: ‘허방 짚다’의 ‘허방’은 ‘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를 뜻한다.

23.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 ① 소경 머루 먹듯: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② 재미난 골에 범 난다: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③ 깻묵에도 씨가 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④ 가물에 돌 친다: 가뭄에 도랑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23. [정답] ②

[풀이] ‘재미난 골에 범 난다’는 속담은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 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오래 앉으면 새도 살을 맞는다’는 속담과 같은 뜻이다.

24.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국가직 9급]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조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 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조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24. [정답] ②

[풀이] 모수는 자신을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성어가 ‘낭중지추(囊中之錐)’이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 ①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④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에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2017 사인복지직 9급]

사면(四面)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 토끼 은신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樵童)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에 전패(全敗)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 작은 눈 부릅뜨고 짧은 꿈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

- ① 小隙沈舟 ② 魂飛魄散 ③ 亡羊補牢 ④ 干名犯義

25. [정답] ②

[풀이] 제시문은 「수궁가」에서 자라가 토끼에게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유인하는 장면이다. 밑줄 친 부분은 토끼가 정신없이 달아나는 장면이므로 ‘혼비백산(魂飛魄散)’이 적절하다.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 ① 소극침주(小隙沈舟):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게을리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④ 간명범의(干名犯義):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

26. 다음 내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7차) 9급]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① 殃及池魚 ② 渴而穿井 ③ 亡羊補牢 ④ 死後藥方文

26. [정답] ①

[풀이] 제시된 작품은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적은 교훈적 수필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하면서 잘못은 더 커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갈이천정(渴而穿井), 망양보뢰(亡羊補牢),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하지만 ‘양급지어(殃及池魚)’는 재앙이 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제삼자가 엉뚱하게 재난을 당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성문(城門)에 난 불을 끄려고 못의 물을 전부 퍼 온 탓으로 그 못의 물고기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오답]

- ② 갈이천정(渴而穿井):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所用)이 없음. 또는 ㉡ 자기가 급해야 서둘러서 일을 함.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나 일이 다 틀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권 끝.

※ <2018 정상국어> 3권 추록 총정리 37문제

1.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7 시인복지직 9급]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 중에서 —

-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
 ②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④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1. [정답] ③

[풀이] ‘금빛 게으른 울음’은 청각을 시각적으로 전이(轉移)시킨 공감각적 표현이다. 그런데

③번은 ‘서느런 옷자락’에서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을 뿐 공감각적 표현이 아니다. ‘서느런 옷자락’과 ‘열(熱)로 상기한 불’에서 대조법이 사용되었을 뿐이다.(출전: 김종길, <성탄제> 中)

[오답]

- ①: ‘냄새가 담장을 넘는다’고 했으므로 후각의 시각화.(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中)
 ②: 도토리를 햇볕에 말리는 모습을 ‘햇볕의 발 디디는 소리’라고 했으므로 시각의 청각화.(출전: 김선우, <단단한 고요> 中)
 ④: ‘물고기처럼 튀는 피아노 소리’라고 했으므로 청각의 시각화.(전봉건, <피아노> 中)

(가) 꺾테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테기는 가라.

㉡꺾테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꺾테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꺾테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테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꺾테기는 가라’ -

(나) 영화(映畵)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함으로써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2.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신동엽은 4·19 혁명에 대하여 남다른 집념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힐 수 있었던 것도 4·19 정신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는 바로 4·19 정신의 정수로부터 획득한 이념적 힘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1960년대 참여 문학의 대표작이며, 이후 민중 민족 문학의 이정표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①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②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가리는 부정적 대상을 의미한다.
- ③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잊고 살았던 부끄러움을 의미한다.
- ④ ㉣: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 중 하나가 민족 분단의 극복임을 의미한다.

2. [정답] ③

[풀이]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는 우리 민족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통일을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정신을 잊고 살았다는 해석은 잘못되었다.

[오답]

- ①: '알맹이'는 순수한 정신을 의미한다.
- ②: '썩테기'는 허위와 가식을 의미하며 '가라'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이를 배척하고 있다.
- ④: 한반도 전체(조국)를 의미하며 민족 분단의 현실에 대한 극복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가) 신동엽, '썩테기는 가라'(1967)

주제: 진정한 순수한 민족의 삶 추구.

내용: 군부 독재 체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세력이 물러가고 순수과 열정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특징: ① 직설적 표현으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함

② 반복적 표현과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3.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아름다운 모습이 화자가 ㉣를 지향하는 대상을 비웃는 계기가 된다.
- ② 화자가 ㉣로 지향하는 이유는 ㉡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모습 때문이다.
- ③ 화자는 ㉡에서의 삶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를 잊고 자리에 앉게 된다.

④ ㉔를 향하는 대상은 ㉔에 남아 있는 화자를 부러워한다.

3. [정답] ②

[풀이] ㉔는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하의 조국’을 뜻하고, ㉔는 ‘시적 화자가 도피하고픈 희망과 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①: ㉔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화자는 ㉔를 버리고 ㉔를 추구하고 있다.

④: ㉔에 남은 화자를 부러워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참고] (나)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내용: 영화 상영 전 애국가를 들을 때 화면에 비치는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과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징: ① ‘애국가’가 나올 때의 배경 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② 냉소적인 어조를 지님

③ 반어법과 반복법을 사용함.

4. (가)와 (나)의 화자가 만나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현재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부정적 대상들을 제거한다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요.

② (나): 네, 제가 놓여있는 공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③ (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극복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④ (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남아서 부정적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4. [정답] ④

[풀이] (나)의 화자는 ‘자리에 앉는다’와 ‘주저앉는다’를 통해 현실에 대한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오답]

①: ‘껍데기는 가라’의 명령적 표현은 부정적 대상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통해 한반도 공간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①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②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③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④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5. [정답] ④

[풀이] ㉣은 ‘슬픔을 억제한 어머니의 눈물’을 뜻하며,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상징한다. ‘견디는 희망’과는 관계가 없다.

[참고] 박재삼, 「추억에서」(1962)

주제: 한스러운 삶을 살다 간 어머니에 대한 회상

특징: ①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슬픔의 정서를 표현함.

② 영탄형,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정서 표출을 절제함.

6.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앞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6. [정답] ④

[풀이] 이 시는 중년 노동자의 비애를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슬픔을 퍼다 버린다’,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등을 통해 주관적인 감정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1978)

주제: 강물에 삼을 씻으며 느끼는 노동자의 삶의 비애

7. 다음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트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

- 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점층적으로 의미를 확대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④ 일상적 경험에서 생명 순환의 원리를 깨닫는 사고의 확장 과정이 드러난다.

7. [정답] ③

[풀이]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맨 마지막 구절은 시상을 마무리해 여운을 남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주객전도된 표현일 뿐 반어적 표현이 아니다. '내가 사과를 먹고, 사과도 나를 먹는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얹혀 있다는 표현이다. 특히 흙으로부터 사과가 만들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명 순환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역설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오답]

- ①: '사과를 먹는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사과를 먹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개인적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리 생성과 소멸의 우주 원리를 깨닫는 사고 확장 과정이 드러난다.

[참고]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1990)

주제: 사과를 먹는 경험에서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성격: 사색적, 역설적

제재: 사과를 먹는 행위

내용: 흔하고 단순한 사과라는 대상 자체만이 아니라, 사과를 둘러싼 자연 현상과 인간의 노력, 생명 순환의 원리를 사과를 먹는 일상적인 경험을 소재로 한 개성적인 시이다.

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소방직 9급]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 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 ① 점층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시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 ②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다채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이미지를 나열하여 시적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이국적이고 도시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④

[풀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도룬 시의 가을 하늘’, ‘포플라나무의 근골’, ‘공장의 지붕’ 등에서 이국적이고 도시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이다.

[오답]

- ①: 점층적 구성이 아니다.
- ②: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했지만, 화자는 쓸쓸하고 고독할 뿐 다채로운 정서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③: 대조적인 이미지나 시적 긴장감과 관계가 없다.

[참고] 김광균, 「추일서정」 (1940)

주제: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성격: 회화적, 감각적, 주지적

내용: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묘사를 통해 그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다.

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아무리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9. [정답] ③

[풀이] 화자는 나비를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와 같은 존재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시에서 나비는 바다의 냉혹함을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이므로 ‘의지 부족’이나 ‘방관적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청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긍정적 공간이다. ‘바다’는 ‘비생명성의 공간, 거대 도시 문명, 거칠고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②: ‘흰나비’는 바다의 냉혹함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 ④: ‘삼월’과 ‘새파란’은 바다의 차가운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 김기림, <바다와 나비>(1939)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특징: ① 주지주의(主知主義) 시. 문명 비판적인 시. ② 주관적 해석이나 가치 판단 배제. ③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

10. 다음 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법원직 9급]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수사적 의문을 통해 시상을 환기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시적허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응축되어 표현이 된다.
- ③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밤이지만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 ④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색채 대비를 이루며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10. [정답] ④

[풀이] '눈'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매개체이자 포근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눈'과 색채 대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아니라, 힘겹고 고달픈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오답]

- ①: '내리는가'의 설의법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4연에서 '차마'는 부정적인 말과 호응하는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곳'이라는 긍정적인 말과 어울려 사용했다.
- ③: '눈'은 추운 계절이면서도 그리움의 매개체로 쓰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참고] 이용악, <그리움>(1947)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그리움 고조

② 수미 상관: 형태적 안정감, 주제 강조

11.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11. [정답] ③

[풀이] 영달은 어린애처럼 가볍고 쇠약해진 백화에 대해 가엾어 하고 있다. ‘대전에서의 옥자’와 동일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일 뿐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와는 관계가 없다.

12. 다음 소설 속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기상직 9급]

건넌방에서 아침잠이 몽긋이 들었던 덕기는 그제야 눈이 떠어서,
 “왜 그러니?”

소리를 치며 미닫이를 여니까 아랫방에서 ㉠모친이,
 “어서 사랑에 나가봐라.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셨단다.”

하고 소리를 친다. 모친은 어제 와서 같이 잔 딸이 학교에 가느라고 머리를 빗는데 일어나는 길로 뒷머리를 뺨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일어서지 못했다. 한방에 자던 여편네들도 이제야들 일어나 앉아 씩둑거리고 있다가 매무시도 채 못해서 곧 나오지들 못했던 것이다.

덕기가 바지저고리만 꿰고 뛰어나간 뒤에야 비로소 모친과 덕기 누이 덕희가 사랑으로 나갔다.

덕기 모친은 먼저 나갔던 사람들과 사랑 문간에서 마주쳤다. 수원집은 암상이 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린다. 늦게 나온다고 못마땅해서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니 덕기 모친도 심사가 났다.

“좀 어떠시냐? 다치시지는 않으셨니?”

그래도 노인이 병환에 넘어졌다니 애가 썩어서 시서모의 뒤따른 ㉠며느리더러 물어보았다.

“다치신 데는 없어요. 들어가 누우셨어요.”

사랑방에 누운 영감도 며느리가 늦게 나와 보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래도 ㉡며느리는 아들보다 낮게 생각하는 터이라 내색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가 문안겸 인사를 하니까,

“응, 허리가 좀 아프지만 별일 있겠니?”

하고 너서 손주딸을 쳐다보고 온유한 낮빛으로,

“학교 가기 곤하겠구나? 그저 잤던?”

하고 물었다. 그저 자리 속에 있어서 이제야 나왔나 하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예요. 머리 빗느라고 ㉢어머니가 막 땅는데 넘어지셨다지요.”

하고 덕희는 어리광 삼아 생글 웃고 옆에 서 있는 오라비를 돌려다보고,

“오빠 같은 게으름뱅이나 이때까지 자지요.”

하고 놀린다.

- 염상섭, ‘삼대’ -

- ① ‘수원집’과 ‘덕기 모친’은 고부지간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
- ② ‘영감’과 ‘덕기·덕희’는 조손지간으로 서로 사이가 좋은 편이다.
- ③ ㉠, ㉡, ㉢은 모두 ‘덕기 모친’을 가리키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④ ‘시서모’라는 단어를 통해 ‘수원집’이 ‘영감’의 첫째 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 [정답] ③

[풀이] ㉠, ㉡, ㉢은 ‘덕기 모친’이고, ㉣은 ‘덕기의 아내’이다.

[참고] 소설 속에서 언급된 ‘시서모(媼庶母)’는 ‘아버지의 첩’을 뜻하며, ‘수원집’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보 기 >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13. [정답] ②

[풀이] ‘금광 브로커’들은 ‘이 시대의 무직자’로,金を 캐서 일확천금하려고 모여든 가난한 조선인들을 말한다.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과 안타까움의 대상이다. 이 소설은 광산 열풍이 일어나 금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던 1930년대 세태를 비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오답]

- ①: 지금과는 달리 1930년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③: 황금 캐기에 집착하는 현실에 대해 서술자는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 ④: 당시 금광열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불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툼만한 흑이 달리고 그 흑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꼬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뿔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쫓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14. [정답] ③

[풀이] 제목을 통해 ‘중국인 거리’라는 공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지만 시간적 배경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참고] 오정희, <중국인 거리>(1979)

주제: 6·25 전쟁 직후 한 소녀의 정신적인 성장과 고통

배경 및 종류: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생겨난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6) [2017 경찰직(1차) 9급]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나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썽……,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몸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 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얹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수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15.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씀.
- ② ㉡: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함.
- ③ ㉢: 끈기가 있고 모쪼.
- ④ ㉣: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

15. [정답] ③

[풀이] ‘칙살스럽다’는 ‘하는 것이나 말 따위가 잘고 더러운 데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는 칙살스럽게 인력거를 공짜로 탈 사람이 아니다.’ 등의 형태로 쓰인다. 참고로, ‘끈기가 있고 모쪼’를 뜻하는 단어는 ‘악착(齷齪--)’이 있다.

[오답]

- ① 적공(積功): (공을 쌓음)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씀. 예) 무슨 일이고 적공을 들여서 안 되는 것은 없었다.
- ② 철빈(鐵貧): 더할 수 없이 가난함. 또는 그런 가난. 예)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 발 막대 내저어야 짚 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 ④ 후분(後分): 사람의 평생을 셋으로 나눈 것의 마지막 부분.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를 이른다. 예) 사람이란 후분이 좋아야지 초년 호강은 쓸데없다는 것과...

16.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② 소설 속 관찰자가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③ 결과적으로 긍정적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한다.
 ④ 현실적 삶의 방식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16. [정답] ③

[풀이] 소설 속의 서술자인 ‘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얕고 무지한 부정적 인물이다. 겉으로는 ‘나’(=조카)가 아저씨(=숙부)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있지만 작가는 오히려 ‘나’의 현실 순응적 삶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정적 서술자가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는 소설이므로 ③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아따, 저 거시기 ~ 내 원!’ 등에서 판소리 사설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④: ‘나’의 현실적 삶의 방식과 아저씨의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참고] 채만식, 「치숙(痴叔)」(1938)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내용: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폐인이 된 지식인과 그를 비판하는 조카를 통해, 당시 지식인의 좌절을 그리면서 식민 지배하의 현실 순응적인 삶의 태도를 풍자적 수법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17.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 -

-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17. [정답] ②

[풀이] ‘거북아 거북아(환기) - 머리를 내어 놓아라(요구) - 만약 머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 (조건) - 구워서 먹으리(위협)’의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

[참고] <구지가(龜旨歌)>. 주제: 김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함.

1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찰직(1차) 9급]

호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르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носи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①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 ②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에서 화자는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

18. [정답] ④

[풀이] ‘잣가지(=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비유하고, ‘눈’은 고난과 역경을 비유한다.

[오답] ③: ㉠은 해석상 이설이 많은 구절이므로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어학자 김완진 해석에 의하면 ‘달’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비유하며,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가서 볼 수 없다’는 것은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 <가시리>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 [2017 사회복지직 9급]

- ① 한용운, 「님의 침묵」
-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④ 김소월, 「진달래꽃」

19. [정답] ④

[풀이] 「가시리」의 정서는 소극적인 여성 화자에 의한 ‘이별의 정한(情恨)’이다. 김소월의 「

진달래꽃」 역시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오답]

- ① 한용운, 「님의 침묵」(1926)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1934) 주제: 전원생활을 통한 달관적인 삶의 추구.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1947) 주제: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미.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0~문22] [2017 법원직 9급]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틱야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황진이 -

20. <서경별곡>과 (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사를 활용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0. [정답] ③

[풀이] <서경별곡>에서는 ‘그즈리잇가’에서 ‘-잇가’, (가)에서는 ‘모로던가’에서 ‘-노가’를 의문형 어미로 사용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서경별곡>은 영원한 사랑이, (가)는 회한(悔恨)과 자책의 감정이 드러난다.

[오답]

- ①: (가)는 감탄사 ‘어저’를 활용해 회한(悔恨), 자책(自責),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서경별곡>에는 감탄사가 없다.
- ②: 시어의 반복은 <서경별곡>에만 나타난다.
- ④: <서경별곡>에서 ‘건너편 꽃’은 ‘다른 여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소재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에는 상징적인 소재 자체가 없다.

[참고]

(가) 황진이 시조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悔恨).

특징: 도치법과 행간 걸침의 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함.

21. <서경별곡>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만나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태평성대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 가시리 -

- ① <서경별곡>: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임을 따라가서 사랑하고 싶어요.
- ② <보기>: 저는 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까 봐 보내드리려고 해요.
- ③ <서경별곡>: 그래서 저도 사공에게 떠나는 임을 잘 모셔줄 것을 부탁하네요.
- ④ <보기>: 슬프지만 임이 빨리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21. [정답] ③

[풀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서경별곡>의 3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을 배에 싣고 가는 사공에 대한 원망을 통해 임이 강만 건너면 다른 여인을 사귀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①: ‘우리곰 좇니오이다’, ②: ‘설은 님 보내옵노니’, ④: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가)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② 마음이 어린 후(後)니 호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호노라
- ③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느고
 ④ 청산리(靑山裏) 벽계수(壁溪水) |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흐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흐니 수여 간들 엇더리

22. [정답] ②

[풀이] (가)는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悔恨)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의 서경덕의 시조는 (가)의 시인인 황진이를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②는 임을 떠나보낸 후 기다리는 전통적인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오답]

- ①: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를 표현한 시조이다.(월산대군)
 ③: 임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긴 하였으나 화자가 임을 떠나보냈다고 할 수는 없고,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 것일까.’라고 했으므로 (나)와 다르다.(황진이)
 ④: 인생무상과 풍류 생활을 표현한 시조이다.(황진이)

23. 다음 시조 중 창작 계층이 다른 것은? [2017 기상직 9급]

- ①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홀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느고.
 ②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브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몬내 도하호노라.
 ③ 한송정(寒松亭) 달 밝은 밤의 경포대(鏡浦臺)에 물결 잔 제
 유신(有信)한 백구(白鷗)는 오락가락 하건마는
 어떻다 우리의 왕손(王孫)은 가고 안이 오느니.
 ④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23. [정답] ②

[풀이] ②번은 자연에서의 흥겨움을 노래한 양반인 윤선도의 <만흥(漫興)>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녀의 작품이므로 창작 계층이 다른 것은 ②번이다.

[오답]

- ①: 황진이의 시조. 주제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③: 홍장의 시조.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④: 계랑의 시조.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24. 다음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자 성어는? [2017 소방직 9급]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뒤흔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몸내 도하호노라. <제3수>

누고셔三公(삼공)도곤 낫다흐더니 萬乘(만승)이 이만흐랴.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소부 허유)ㅣ 낙뎡더랴.
 아마도 林泉閑興(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江山(강산)이 도타 혼들 내 分(분)으로 누얼느냐.
 님군 恩惠(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막리 갑고자 햏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① 맥수지탄(麥秀之嘆) ② 천석고황(泉石膏肓)
 ③ 연하고질(煙霞痼疾) ④ 강호가도(江湖歌道)

24. [정답] ①

[풀이] 맥수지탄(麥秀之嘆)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제시된 시와 관계가 없다.

[오답]

- ② 천석고황(泉石膏肓) = ③ 연하고질(煙霞痼疾):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性癖).
 ④ 강호가도(江湖歌道): 조선 시대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면서 일으킨 시가 창작의 한 경향.

[참고] 윤선도, 「만흥(漫興)」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내용: 세상일을 떨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전6수의 연시조로서,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작품이다. ‘흥이 일어난다’는 뜻을 지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2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사인복지직 9급]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새울세라
 청강(淸江)에 일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① 작자는 정몽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 ②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 ③ ‘새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25. [정답] ④

[풀이] 제시된 시조는 비유법 중 풍유법이 사용되었다. ‘풍유법(諷諭法)’은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이다. 비유법의 하나로, 속담이나 격언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등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오답]

- ①: 작자는 정몽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가던 날, 팔순이 가까운 노모가 간밤의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말라면서 불렀다는 ‘경계가(警戒歌)’이다.
- ②: ‘까마귀’는 이성계 일파, ‘백로’는 정몽주를 의미한다.
- ③: ‘새울세라’는 ‘시샘하나니(시기하나니)’의 뜻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6~문27] [2017 법원직 9급]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혀야 이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탁야 어즈러이 호똥쨌디
 반기시논 늦비치 네와 엇디 다투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갓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갓티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엇디혀야 디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뵈 네와 갓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호니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름 올가

내 므음 둘 덕 업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잡거니 밀거니 눅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ㄱ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렸는고
 강천(江川)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딛 역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ㄱ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슴 슬ㄱ장 슬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떼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즘은 엇디 씨뒸던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썸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둘이야 ㄱ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을 대신해 임을 모시는 사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탄식을 통해 화자의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6. [정답] ③

[풀이] ㉢의 뜻은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는고.'이다. 임을 모시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과 임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따라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은 잘못된 설명이다.

27. ㉠과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과 ㉡는 입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에 비해 ㉡는 입에 대한 적극적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이다.
- ④ ㉡에 비해 ㉠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7. [정답] ③

[풀이] ‘낙월’은 멀리서 잠깐 동안 입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달로, 입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화자의 절망감을 내포한다. 이에 비해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며 입의 옷을 적실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월’에 비해 ‘구준비’가 입에 대한 적극적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 ①: 두 시어 모두 원망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 ②: ㉠과 ㉡가 아니라 시의 중간에 제시된 ‘구름’과 ‘안개’가 장애물에 해당한다.
- ④: 두 시어 모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과는 관련이 없다.

28. 문맥을 고려하여 ㉠~㉣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2017 시인복지직 9급]

길동이 ㉠체읍주왁(涕泣奏曰),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부형(父兄)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家)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蒙昧)로 몸이 ㉢적당(賊黨)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불었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小弟)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날을 새우고 평명(平明)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참연(慘然)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 ① ㉠: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
- ② ㉡: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
- ③ ㉢: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
- ④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

28. [정답] ③

[풀이] 길동의 죄는 도둑의 무리인 활빈당(活貧黨)을 이끌며 나라를 혼란하게 한 것이다.

[오답]

- ①: ‘체읍(涕泣)’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읊’을 뜻한다.
- ②: 서자(庶子)로 태어나 호부 호형(呼父呼兄)을 하지 못하는 한(恨)을 말한다.
- ④: 길동이 감사를 결박한 것이 아니라 길동의 형인 감사가 길동을 결박한 것이다. 참고로, ‘참연하다(慘然--)’는 ‘슬프고 참혹하다.’는 뜻이다.

29.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나.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결로 함심(含心)하여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덕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닫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여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여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29. [정답] ④

[풀이] ㉣은 앞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풍진, 風塵’ = 전쟁)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그

종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31~문34] [2017 법원직 9급]

(가) 동명왕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아무리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만은 잘 알 줄 안다.

나도 일찍 이 이야기를 들었건만 그때 나는 웃고 말았다. 공자가 괴상하고 요란한 귀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기에 이 역시 황당하고 괴이한 이야기인지라 우리들이 즐겨 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으니 거기에 또한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내용이 간략하여 상세하지 못하였다. 자기네 중국 이야기라면 자세히 썼으련만 다른 나라 이야기라 이다지 간략하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계축년(1193) 4월 ‘구삼국사’를 구하였는데 거기에 실린 ‘동명왕 본기’를 보니 신비로운 사적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역시 잘 믿기지 않아 그저 괴상하고 황당한 이야기려니 하였다. 그러다가 여러 번 거듭 읽으면서 참뜻을 생각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니,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요 성스러운 것이며, 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었다. 하물며 나라 역사의 정직한 필치에 무슨 거짓이 있겠는가!

김부식 공이 다시 ‘국사’를 편찬하면서 동명왕의 사적을 자못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공은 아마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라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생각건대 당나라 ‘현종 본기’와 ‘양귀비전’을 보면 방사(方士)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인 백낙천(白樂天, 백거이)이 그러한 이야기가 희미해져 없어질까 봐 ‘장한가(長恨歌)’를 지어 그 사연을 밝혀 두었다. 실상 그 이야기야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시로 노래하여 훗대에 전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동명왕의 이야기라. 동명왕의 이야기는 변화무쌍하고 신비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가 처음 창건되던 때의 신성한 자취를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서술해 두지 않으면 뒷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내 노래로 이 사적을 기록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이다.

- 이규보, ‘동명왕편 병서’ -

(나) 십구 일의 남문 대장(南門大將) 구굉(具宏)이 발군하여 빠화 도적 이십 명을 죽이다. 대풍(大風)하고, 비 오려 하더니 김청음(金淸陰)을 명하여 성황신(城隍神)의 제(祭) 하니, 바람이 멎치고 비 아니 오니라.

이십 일의 마장(馬將)이 통사(通使) 덩명수(鄭命壽)를 보내야 화친하기를 언약할식 성문을 여디 아니하고 성 우회서 말을 던지게 한다.

이십일 일의 어영 별장(御營別將) 니기록(李起樂)이 군을 거느려 도적 여라믄을 죽이고, 동문 대장(東門大將) 신경진(申景禎)이 발군하여 도적을 죽이다.

이십이 일의 또 마부대(馬夫大) 통사(通事)를 보내여 날오되, 이제는 동궁(東宮)을 청티 아니니, 만일 왕즈 대신을 보낸면 덩하야 화친하자 하되, 상이 오히려 허티 아니

시다. 북문 어영군이 도적 여라문을 죽이고, 신경진이 또 설혼아문을 죽이다. 상이 낙정(內廷)의서 호군(犒軍)하시다.

(중략)

이십스 일의 대위(大雨)이 느리니, 성첩(城堞) 직현 군식 다 적시고 어러 죽으 니 만흐니, 상이 세즈(世子)로 더브러 쓸 가온디 서서 하늘기 비러 곁오샤디,

“금일 이에 나르기는 우리 부직 득죄함이니, 일성 군민(一城軍民)이 무슨 죄리잇고. 텃되(天道) 우리 부즈의게 화를 느리오시고, 원컨대 만민을 살오쇼셔.”

군신들이 드르시기를 청하디 허티 아니하시더니, 미구(未久)의 비 굿치고, 일과 츠지 아니하니, 성등인(城中人)이 감읍(感泣)디 아니리 업더라.

이십오 일의 극한(極寒)하다. 묘당(廟堂)이 적진의 스신 보느기를 청하오니, 상이 곁오샤디,

“아국이 밋양 화친으로써 저의게 속으니, 이제 또 스신을 보느야 욱될 줄 아디, 모든 의논이 이러하니 이 세시(歲時)라, 술, 고기를 보내고 은함(銀盒)의 실과를 담아 뼈후정(厚情)을 뵈 후, 인하야 접담(接談)하야 괴식을 살피리라.”하시다.

이십육 일의 니경직(李景稷), 김신국(金薰國)이 술, 고기 은함을 가지고 적진의 가니, 적장이 곁오디,

“군등(軍中)의 날마다 쇼 잡고 보물이 뵈긋티 빠혀시니, 이거술 므어식 쓰리오. 네 나라 군신(君臣)이 돌 굵기서 굴면 지 오라니, 가히 스스로 뵈죽하도다.”하고, 드티여 밋디 아니하고, 도로 보느니라.

이십칠 일의 날마다 성등의 구완하라 오는 군식을 브라디 일인도 오느니 업고더라.

- 어느 궁녀, ‘산성일기’ -

31. (가)를 쓴 작가 이규보의 생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구별하여 소중히 전해져야 한다.
- ② 우리나라가 창건되던 때의 역사는 신성한 것이기에 거짓이더라도 기록해야 한다.
- ③ 김부식은 동명왕의 사적을 아마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이다.
- ④ ‘장한가’는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1. [정답] ②

[풀이] (가)는 이규보가 지은 서사시 「동명왕편(東明王篇)」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다. 글 쓴이는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가 ‘황당한 것이 아니요 성스러운 것이며, 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었다.’라고 하며 이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거짓이라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 ①: 마지막 문단의 ‘내 노래로 이 사적을 기록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5문단의 ‘공은 아마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라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6문단의 ‘장한가’를 놓고 ‘거칠고 음탕하며 황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시로 노래하여 후대에 전하였거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가) 이규보, ‘동명왕편(東明王篇) 병서’

주제: 자주적 시각에서 기술한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

내용: 동명왕의 영웅적인 행적을 재인식하여 노래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636년 국호를 청(淸)으로 고친 청 태종은 조선에 최후통첩을 보내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청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척화론자들을 압송하라고 요구한다. 조선의 집권층이 이를 무시하자, 청 태종은 그해 12월 조선에 침입한다. 청의 선봉 부대가 한양에 접근하자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나, 곧 청군에 포위된다.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고, 청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볼모로 잡고 대표적인 척화론자들인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3학사를 체포해 철군한다.

- ①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군.
- ② ‘돌 굵기’는 적장이 남한산성을 멸시하여 이른 말이겠군.
- ③ 글쓴이는 척화론자들의 현실 감각 결여를 비판하고 있군.
- ④ 날이 갈수록 전세가 불리해지는 가운데 조정의 의견이 척화보다는 화친으로 모아졌군.

32. [정답] ③

[풀이] 이 글은 병자호란을 기록한 유일한 한글 일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필치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문학적 가치가 있다. 글에 척화론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 ①: 제시된 내용은 19일부터 27일까지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인조가 화친의 뜻으로 적에게 세찬(歲饌)을 보내지만 적장은 이를 오만한 태도로 거절하고 있다. ‘돌 굵기’는 ‘돌구멍’이라는 뜻이다. 청나라 장수들은 소를 잡아서 포식하고 있으나, 돌구멍과 같은 성 안에 포위된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은 굶고 있으니 도로 가다가 먹이라 말함으로써 조선을 멸시하고 있다.
- ④: 25일 이후는 적과의 화친을 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참고]

(나) 어느 궁녀, ‘산성일기(山城日記)’(1636년경으로 추정)

주제: 병자호란의 치욕과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의의: ① 병자호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한글로 기록한 유일한 작품

② 객관적 자세를 견지한 대표적 한글 수필

③ ‘계축일기’와 함께 국문학사상 쌍벽을 이루는 일기체 작품

내용: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항전하다가 항복하게 되기까지의 정황

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한글 수필이다.

33.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선은 청의 통역사로 남한산성에 온 정명수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② 임금은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 죽는 병사들을 보고 비통함을 느껴 하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적장은 매번 화친에 속았지만 굶고 있는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선물인 술과 고기를 되돌려 주었다.
- ④ 성 안의 신하와 백성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해 있다.

33. [정답] ③

[풀이] 조선이 적장에게 화친의 의미로 세찬(歲饌)을 보내지만 적장은 이를 오만하게 거절하며 조선을 멸시한다. 적장이 조선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20일을 보면 화친하러 온 적의 통역관 정명수를 돌려보냈음을 알 수 있다.
- ②: 24일에 큰비가 내리고 이에 얼어 죽은 군사를 보며 왕과 세자가 하늘에 기원을 한다.
- ④: 성 안의 사람들은 고립되어 도움 받을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34. 다음은 (나)의 26일에 있었던 조선과 청의 대화 장면을 가상으로 꾸며본 것이다.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경직: 마침 설날이기도 하여 우리가 두터운 정으로 술과 고기를 준비해 왔으니 받아주시고 화친합시다.
- ② 적장: 그런 거 필요 없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곳간에 차고 넘치니 도로 가져가서 당신네 임금과 신하나 드시오.
- ③ 이경직: 왜 이러시오? 4일 전인 22일에는 당신네가 아무 조건 없이 싸움을 그치고 화친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소.
- ④ 적장: 22일에 다시 화친을 제의했을 때라도 받았어야지요. 자, 이 술과 고기를 갖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34. [정답] ③

[풀이] 22일에 적장이 화친을 하고자 통역관을 보냈으나 이에는 왕자와 신하를 보내라는 조건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화친하겠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 ①: 화친의 의미로 세찬(歲饌)을 보낸다.
- ②, ④: 적장은 조선의 세찬(歲饌)을 거절하고 조선을 무시한다.

35. 정지상, 「송인(送人)」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2017 소방직 9급]

- ① 기구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 ② 승구는 임을 원망하면서 임을 떠나보낸 슬픔을 표현했다.
- ③ 전구에서 화자는 무한하고 영원한 자연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 ④ 결구는 이별 후에도 화자의 슬픔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35. [정답] ④

[풀이] 결구(結句)(=4행)는 임을 보내는 깊은 슬픔을 표현한 행이며, 고조된 이별의 한(恨)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대동강 물이 이별의 눈물로 인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별 후에도 화자의 슬픔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 ①: 기구(起句)(=1행)는 봄날 비 갠 강변의 싱그러움을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과 대비되어 이별의 정한을 더욱 깊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승구(承句)(=2행)는 임을 보내는 애절한 정한을 표현한 것일 뿐 원망의 정서는 없다.
- ③: 전구(轉句)(=3행)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물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6.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2017 지방직 9급]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① ㉠ ② ㉡
- ③ ㉢ ④ ㉣

36. [정답] ④

[풀이] 제시된 작품은 허난설헌의 한시 <봄비[春雨]>이다. 봄비를 보며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자신을 봄비에 떨어지는 살구꽃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참고] 허난설헌의 <봄비[春雨]>

春雨暗西池(춘우암서지)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경한습라막)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수이소병풍)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杏花落(장두행화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주제: 봄비를 바라보는 여인의 쓸쓸함과 우수(憂愁)

시상 전개 방식: 선경후정(先景後情)

특징: ‘봄비’, ‘찬바람’, ‘지는 살구꽃’ 등의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함.

본문: 1행-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정경. 2행-쌀쌀한 기운이 쓸쓸함을 더함. 3행-독수공방하는 여인의 한. 4행-지나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

37. 다음 한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2017
경철직(1차) 9급]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 ①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ㅣ로다.
갹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③ 반중(盤中) 조홍(早紅)갹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ㅣ 안이라도 품업 즉도 흐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흐느이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흐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37. [정답] ④

[풀이] 제시된 한시는 황현의 ‘절명시(絶命詩)’이다. 작자가 1910년 국권 피탈의 슬픈 소식을 접하고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④번은 원천석의 시조로,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한 무상감과 탄식을 다룬 작품이므로 제시된 작품과 정서가 유사하다.

[오답]

- ①: 이별의 슬픔(계랑).
②: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운 삶(성혼).
③: 지극한 효심(孝心), 풍수지탄(風樹之嘆)(박인로).

[참고] 황현, ‘절명시(絶命詩)’

연대: 경술국치(庚戌國恥)(1910) 직후

주제: 국난(國難)에 대처하는 지식인의 고뇌

표현: 활유법, 과장법, 대유법, 감정이입법

鳥獸哀鳴海岳嘯(조수애명해악빈)

새 짐승 슬피 울고, 강산도 찢그리니
槿花世界已沈淪(근화세계이침륜)

우리나라 이 강산이 이젠 망해 버렸네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회천고)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고역사 생각해 보니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세상에 지식인 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3권 끝.
